

**02** 보도 높은 취업 체감도에 비해 낮은 교내 프로그램 이용률

**04** 사회 대학생활협동조합, 학생복지의 새 길을 열다.

**06** 사람만 비주얼-아트디렉터 김세영감독을 만나다.

**07** 학술 또 다른 나의 분신, 도플갱어와 마주하다.

**08** 문화 1인 미디어, 감독으로서 기획자로서 연출자로서 1인3역

## 강신일 총장 “청사진은 함께 그려야 하는 것”

### 논란 속의 본교,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지난 26일 금요일 이른 아침, 다시 한 번 총장실을 찾았다. 학생대표와 학교 본부, 기자가 함께한 2차 간담회 이후 열을 하고도 하루가 더 지난날이었다. 짧지만 결코 짧지 않은 그 11일 동안 본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아니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을까?

강신일 총장은 현 상황을 두고 교육부의 정책으로 본교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본인의 임무라고 운을 폈다. 강신일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의지를 보이며 인터뷰에 응했다.

첫 번째 질문은 학내에서 무성한 소문에 대한 것이었다. 바로 학교 본부 보직자의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강신일 총장은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제도적 쇄신을 전면적으로 단행할 것이다”며 “학교본부 보직자뿐만 아니라 전체 보직자의 쇄신을 통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대학구조조정 평가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준비가 되는데 이사회에 인적 쇄신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10월 말 이전에는 새로운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적 쇄신과 함께, 향후 10

년간 진행될 3차례에 걸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조개혁추진위원회는 위원장 강신일 총장과 법인 이사회, 기존 보직교수는 아니지만 학교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교수들과 함께 위원회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에 교직원 대표와 학생대표도 함께해 대학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신일 총장은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본교의 경우 재학생 충원률, 학사관리 부분의 경우 상위권이지만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 등이 타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취업률의 경우 주니어 고신만 운영과 지도교수님과 상담, 학생 자치기구인 졸업준비위원회와 함께 하는 취업 페스티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량지표 뿐만 아니라 정성지표도 철저히 준비해 다가오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신일 총장은 2차 간담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성대 50주년을 바라보고 한성대를 말하면 바로 떠오를 만한 간판 학과, 특성화 학과를 만든



▲ 인터뷰 중인 강신일 총장의 모습이다.

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모든 구성원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지금 한성대가 당장 심각한 ‘위기의 상황인 것은 아니다”며 “물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

한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성대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뭉칠 수 있고 이로써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이번 재정지원가능 대학으로 선정

되는 과정에서 감축하게 된 8.6%의 정원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자율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달간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전위위부의 기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 한성대학교, 1호 학교기업 ‘스튜디오 116’ 창립



▲ 스튜디오116에서 상품 개발 회의를 하고있는 모습이다.

지난 9월 4일 본교는 1호 학교기업 ‘스튜디오 116’을 창립했다. ‘스튜디오 116’은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직접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브랜드상품 제조 기업이다. ‘스튜디오 116’은 본교의 도로명인 삼선로 16길 116에서 유래한 것으로 학교 간판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됐다.

‘스튜디오 116’은 한성대학교의 대학발전계획과 관련한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익창출, 취업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김홍배(제품 디자인전공) 교수는 “학교 기업이 학생들에게 실무 교육적인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상품개발이 아니라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사회적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학교기업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스튜디오 116’은 창업한지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현재 상

품을 개발 중이다. ‘스튜디오 116’의 첫 번째 제품은 노트이다.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판매수익이 환경보호에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시스템을 접목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히 노트판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판매가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전환의 도움을 주며 노트를 구매할 소비자들이 환경보호 운운도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튜디오 116’은 노트 제작뿐만 아니라 기부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동시 진행 중이다. 향후에 제작되는 상품은 모두 기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통할 계획이다. 김홍배 교수는 “스튜디오 116의 기업 자체가 노트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며 “한성대학교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생활 용품을 유통하는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혜진 기자 dhgwps0426@hansung.ac.kr

## 본교 전임교원 확보율 70%로 서울지역 4년제 대학 40개중 22위

### 하지만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율 편중현상 심해

교원에는 크게 전임교원이라 불리는 정규직 교수와 시간강사, 겸임, 초빙, 연구, 객원, 대우교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비전임교원이 있다. 여기서 이러한 전임교원의 확보율이 100%라는 것은 법정교원정원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비전임교원의 비중이 높아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임교원 확보율이 40%면 전체 교원 중 전임교원이 40%이고 비전임교원이 60%인 것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와 전임교원 확보율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특성화 사업, 재정지원제한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대학의 수업여건을 보여주는 중요지표로 사용된다. 특성화 사업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은 평가지표의 12.5%를 차지한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는 전임교수 확보율은 평가지표의 10%를 차지한다. 이는 결코 반영 비율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의 반영비율은 2012년에

5%, 2013년에 7.5%, 2014년에는 10%로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전임교원 확보율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 40개 4년제 대학 중 법정 교원정원을 준수한 학교는 국립대인 서울대(119%), 서울과학기술대(106%)와 사립대학인 성균관대(100%)가 유일했다. 이 외의 모든 서울 4년제 대학은 모두 법정교원정원을 준수하지 못했고, 감리교원신학대가 38%로 가장 낮았다. 우리학교는 70%로 40개 학교 중 22위를 차지했다. 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중간정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학부(과)별 전임교원 확보 현황(재학생기준)을 보았을 때 문제의 여지가 있다. 2014학년도 평균 전임교원 확보율은 70%이고 평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1.85명이다. 그런데 학부(과)별 전임교원 확보현황을 보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학부(과)가 23개 학과 중 15학과나 된다. 이는 결코 반영 비율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의 반영비율은 2012년에

가 2배나 차이난다. 이는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율 편중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전임교원의 비율이 낮다는 건 저비용 고효율의 시간강사 비중을 높여 강의를 채운다는 뜻이다. 이는 강의 개설이 매년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생들의 강의의 선택권이 줄고,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지도를 할 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비전임교원의 강의가 많다는 건 수업의 질 저하와 강좌 간 연계성 하락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에 대한 차후 계획에 대해 김수영 차장(교수지원팀)은 “우리학교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70%로 유지하는 체제를 이어나갈 것이다. 더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70%를 내리거나 학부(과)별 전임교원 확보현황을 보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학부(과)가 23개 학과 중 15학과나 된다. 앞으로는 법정교원정원을 준수한 전임교원의 확보율 100%를 기대해 본다.”

한재원 기자 mongrock@hansung.ac.kr

순위	대학명	확보율 (%)	순위	대학명	확보율 (%)
1	서울대학교	119	21	국립대학교	71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6	22	한성대학교	70
3	성균관대학교	100	23	충신대학교	70
4	한영신학대학교	93	24	서울시립대학교	69
5	고려대학교	90	25	한국체육대학교	68
6	연세대학교	88	26	상명대학교	66
7	한국예술종합학교	88	27	세종대학교	66
8	이화여자대학교	84	28	송신대학교	66
9	한양대학교	81	29	홍익대학교	65
10	동국대학교	80	30	건국대학교	64
11	경희대학교	79	31	삼육대학교	64
12	서강대학교	76	32	서울여자대학교	64
13	서울기독대학교	76	33	광운대학교	63
14	한국외국어대학교	76	34	덕성여자대학교	63
15	숙명여자대학교	76	35	서경대학교	63
16	중앙대학교	73	36	장로회신학대학교	63
17	그리스도대학교	73	37	동덕여자대학교	62
18	추계예술대학교	72	38	성신여자대학교	58
19	한국성서대학교	72	39	서울교육대학교	58
20	성공회대학교	72	40	감리교신학대학교	38

▲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순위표이다.

### ‘대학 구조개혁’, 그것이 알고싶다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에 따르기 위해 대학의 평가요소인 지표 값 관리는 기본이고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 가산점을 받기위해 정원을 감축해야한다. 정원감축을 통한 구조개혁이 최대 목표인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적 문제는 바로 저출산에 따른 학생인구의 급격한 감소이다. 학생인구의 감소로 2018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이 고졸자 수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 부터는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구조개혁 기간을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절대평가로 평가된다. 각 대학은 평가 결과에 따라 대우미흡·미흡·보통·우수·최우수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되고 등급에 따라 ▲임차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라는 조치부터 대입 정원이 고졸자 수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 부터는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3면에 계속 >>

### 한성대 신문사 2014년 2학기 신문발행 일정

발행호	발행일
494호	9월 29일 월요일
495호	10월 13일 월요일
496호	11월 10일 월요일
497호 (종강호)	12월 1일 월요일

# 높은 취업 체감도에 비해 낮은 교내 프로그램 이용률

지난 한성대신문 493호에서 본교의 취업률에 대해 다루었다. 493호에서는 본교의 <다그름> 중 62개 학교 중 학생대 취업률 60등 기록해라는 헤드로 본교의 취업률을 조명했다. 이렇게 본교의 취업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가운데 본교의 학생들은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내 취업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취재하였다.

## 본교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

지난 6월 취업지원팀에서 실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총 응답자 수 367명 중 99%인 364명이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4학년이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의 41%(학기초과자 포함 48%)를 차지하였으며 3·2·1학년이 뒤이는 응답을 하였다.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한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학생들은 '취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어학능력을 1순위(66%)로 뽑았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전공공부(60%), 자격증

취득(50%), 컴퓨터 정보활용 능력(35%)순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연수(14%)나 면접대비(10%)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학년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1위로 꼽힌 어학능력은 학년에 상관없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나 전공공부는 1학년 때 중요도 39%로 최고 수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해 19%에 미쳤다. 고학년의 경우 취업준비생들이 구비해야 할 실무 습득이나 면접 준비 보다는 어학공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 본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 시 중요 요소

한성대신문사에서는 본교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서면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에는 총 151명(1학년 58명, 2학년 28명, 3학년 46명, 4학년 19명)이 답하였다.

설문 중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 준비하였느냐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56%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취업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답한 학생들의 50%는 '아직 명확한 꿈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답했고 이외에는 '취업보다는 학업에 더 열중하고 싶다(21%)'와 '취업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다(19%)'고 답했다.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면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전체 응답자의 32%는 1순위로 학교의 외국어 능력을 꼽았다. 그리고 뒤이어 22%로 학교의 네임벨류를 꼽았으며 본인의 대화활동과 공모전 입상, 학점, 인턴경력, 해외연수가 순서대로 순위를 차지했다.

## 하지만 교내 취업프로그램 이용률은 저조해

교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취업지원팀 산하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교과목 등이 있다. 하지만 본교 학생들의 취업 프로그램 이용률은 취업에 관한 관심에 미치지

못했다.

취업지원팀 지원팀에서는 취업스터디, 취업컨설팅, 취업캠프 뿐만 아니라 모의토의, 토익스피킹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저학년의 참여는 극히 저조했고 주로 고학년 위주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한성대신문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이유에 대해 '홍보의 부족'을 꼽았으며 뒤이어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내용의 부실, 대기업의 인프라 부족 등을 말했다.

반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다수는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지를 보였으며 '취업준비에 자극이 되고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했다.

## 본교의 취업교과목을 아십니까

본교에서는 2013년에 취업교과목을 개설했다. 하지만 2014년 2학기 기준 본교 재학생중 164명이 취업교과목을 들었다. 그 중 고학년의 수강 비율이 높았던 반면 저학년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번학기 수강생은 14년 1학기보다 29%나 적은 수다.

취업교과목은 1학기 때 보다 2학기 수강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순선(산학협력단)과장은 "학생들이 2학기에는 아간강의보다 주간강의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4년 1학기 강의에서는 폐강이 전혀 없었던 반면 2학기에서는 아간 강좌 중 세 개가 폐강되었고 수강생 또한 적었다. 이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한성대신문사에서 실시한 설문문에 따르면 취업교과목을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생의 57%가 "취업교과목을 들어 보지 못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41%가 "취업교과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일정이 많아 시간이 부족해 수강하지 못했다(23%)", "취업에 아직 관심이 없다(19%)",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17%)"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취업교과목이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거나 강의의 요일과 시간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면 수강할 의향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순선 과장은 "취업교과목이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많은 학생들이 핵심교양을 우선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은 저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2학년부턴 1년 정도 들어가 취업 이력서를 쓸 때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 본교 취업률 고취를 위해서

한성대신문사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교과목에 대한 참여도가 부족했다. 또한 교내 프로그램 이용률과 교내 취업률이 낮은 반면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학교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홍보해야 할 것을 염두하고 있다.

최혜정 기자 hip096@hansung.ac.kr

# 제품디자인과 졸업발표회 진행돼



▲ 유재건 학생의 졸업발표 모습이다.

지난 26일 미래관 DLC에서 제품디자인과와 졸업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졸업생 12명의 발표는 학과 학생들과 함께하며 학기에애 한 들뜬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발표에 앞서 김홍배(제품디자인 전공) 교수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졸업발표회는 지난 졸업 발표회와 비교해서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한다"며 "성황리에 발표회가 진행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졸업발표회는 각 학생들의 프로젝트 개요, 조사 및 분석, 디자인 전개와 결과 순으로 발표되었다. 각 학생들이 준비한 이번 프로

젝트는 한 학기 동안 세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회가 시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의 모티브는 단순히 아름답지만 한 디자인이 아닌 이유있는 디자인, 타당한 디자인, 그리고 심미성을 갖춘 디자인이다.

유재건(제품 4) 학생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디자이너가 짚어준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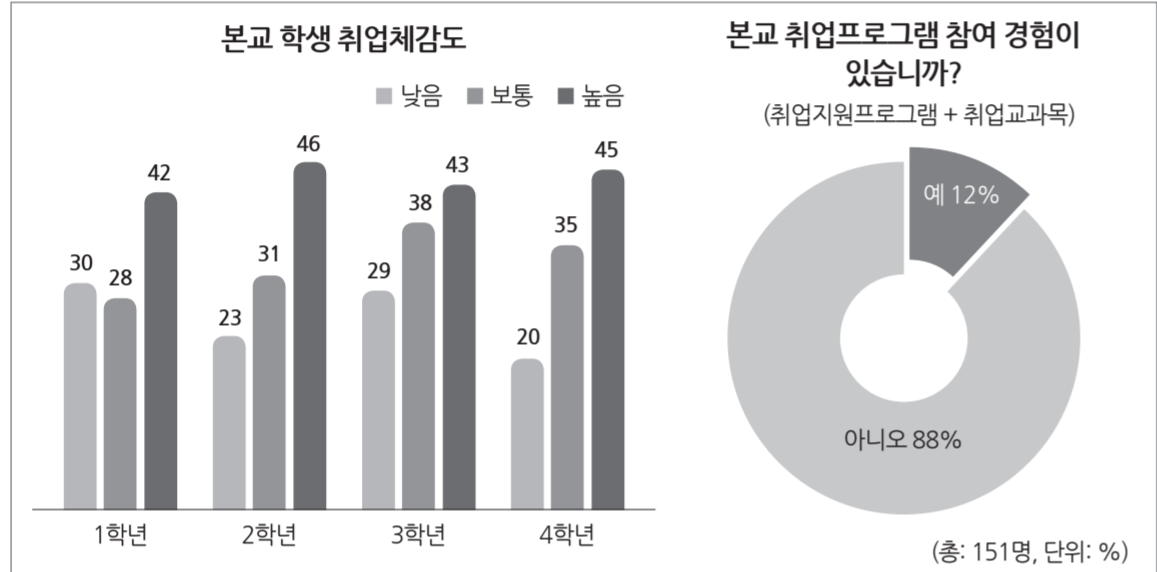
최혜정 기자 hip096@hansung.ac.kr

# 10월 20일 본교 개교 42주년 기념행사 열려

오는 10월 2일 한성대학교가 개교한지 4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11시부터 12시 까지 미래관 지하 1층 DLC에서 1부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구내 식당에서 2부 식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한성학원 이희순 이사장, 강신일 총장, 교수 및 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

이다. 기념식에서는 본교 42주년 연혁보고와 함께 장기근속 공로자 26명에게 근속패를 수여한다고 한다. 장기근속 공로자 근속패는 20년 근속 교수 17명, 10년 근속 교수 2명, 30년 근속직원 1명, 20년 4명, 10년 근속직원 2명에게 수여한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한성대 신문사에서 진행한 본교 재학생 '취업'인식 현황 설문조사 결과이다.

# 예술대학 소속 학생 5명 사문서위조직으로 경찰조사

본교 인근에 위치한 A인쇄소에서 사문서위조직 혐의로 예술대학 소속 학생 5명을 고소했다.

A인쇄소는 지난 8월 8일 "예술대학 소속 학생 5명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을 성북경찰서에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8월 18일 성북경찰서 경계팀 사건으로 접수되어 소속 학과 학과장과 피고소인 학생 면담 및 사건개요에 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19일 학생지원팀에서 사건 진상을 파악을 위해 학생지원처장 및 소속 학과 학과장이 피고소인 학생들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사건에 대한 현 수사 진행상황을 성북경찰서에 물었지만, 수사지원 팀장은 "아직 혐의 유무가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내용을 말해주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전민우(학생지원팀) 주임은 "교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사관리감독' 관련 내용 전파 및 예방 협조, 학사지원팀의 학사관리 감독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민우 주임은 "학교에서는 사건조사 이후에 총장님께 별도로 보고했고, 결석 시 출석인정을 받기 위한 병원진단서 등의 문서를 원천적으로

로 받지 않기로 학과장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학교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문서위조직은 형법 제 231조에 의거하여 (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물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본교 학칙 제 65조에 ①학생으로서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으로 한다. ③징계에 관한 사유와 절차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들의 징계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전민우 주임은 "아직 사건 수사진행단계에 있어 혐의 유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확답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학과장 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 전했다.

한지선 기자 mongrock@naver.com

## 지금 이 순간



▲ 지난 19일 종관관 신축공사로 미래관 옆에 위치한 삼학송이 탐구관 앞으로 자리가 이전되었다. 삼학송은 본교 정문 옆에 우뚝 솟은 소나무 세 그루로, 1920년부터 야생하던 나무이다. 삼학 송은 병자호란 때 나라를 위해 순절한 삼학사의 절개를 뜻하고 있다. 즉 홍익헌, 윤집, 오달재의 절개를 받들어 삼학사의 이름을 따서 삼학송이라고 칭하고 본교의 상징 나무로 삼게 되었다.

#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목적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함양

## 상담 신청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학부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4년 9월 11일(목) ~ 2014년 12월 12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졸업 논문, <사고와 표현> 과제물, 자기소개서 제외)
4.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5. 신청 방법 : ①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의 메뉴에서 상담 → 상담신청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②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본인의 신청 확인은 MY PAGE)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참고)

## |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



# ‘대학 구조개혁’, 그것이 알고싶다

## 교육부의 정책은 ‘정원감축’을 통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은 정원감축이라는 미션을 마주하게 되었다.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에 따르기 위해 대학의 평가요소인 지표 값 관리는 기본이고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 가산점을 받기위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정원감축을 통한 구조개혁이 최대 목표인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 배경과 대학이 어떻게 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자.

(편집자주)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의 필요성 대두

현재 우리 대학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적 문제는 바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2018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이 고졸자 수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부터는 초고졸 정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교육부가 예측한 향후 대학들의 미충원 규모는 △2017년 3만8300명 △2020년 8만8200명 △2023년 16만8000명이다. 향후 10년 내 대입 초과 정원 규모가 약 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입 정원 감감으로 교육의 질이나 여건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 문대학부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앞으로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학 입학정원을 총 16만 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대학의 양적팽창을 지속했기에

사실 앞서 언급한 학령인구 감소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대입정원이 고졸자 수보다 많아지게 될 것을 일찌감치 전 망했기 때문이다.

1965년 이후 대학의 양적성장으로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룰 수 있었지만 1996년 대학 설립 및 정원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령인구의 감소를 전망했음에도 사립대 중심의 양적 팽창을 지속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부실대학이 양산된 것이다. 재정 수입 대부분을 등록금에서 충당하는 사립

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학교부터 몰락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선제 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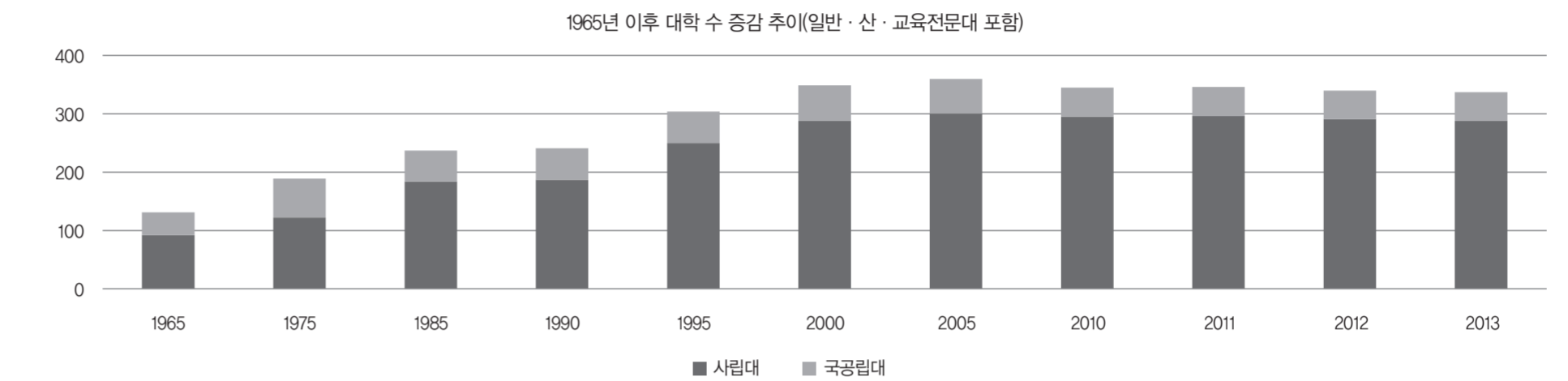
### 노무현정부의 구조개혁, 대학 간 통폐합 추진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 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IMF 구제금융 시기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구조개혁정책이 본격화 한 것은 노무현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정원감축을 재정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노무현정부는 입학정원감축을 조건으로 한 재정 지원사업 및 대학 간 통폐합 추진으로 국립대학 중심의 정원감축을 현실화 한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부실 사립대학' 퇴출을 통해 사립대학 정원감축을 본격화 했다. 대학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 해 '부실대학'을 선별해 정부재정지원 중단 등 자발적 퇴출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2009년부터 경영부 실대학을 선정하고, 2010년부터 학자 금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2011년부터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 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가 운데 일부를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

### 이명박정부의 구조개혁, 부실대 퇴출

노무현정부가 입학정원감축을 조 건으로 한 재정지원사업 및 대학 간 통·폐합 추진으로 국립대학 중심의 정원감축을 현실화 한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부실 사립대학' 퇴출을 통해 사립대학 정원감축을 본격화 했다. 대학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 해 '부실대학'을 선별해 정부재정지원 중단 등 자발적 퇴출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2009년부터 경영부 실대학을 선정하고, 2010년부터 학자 금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2011년부터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 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가 운데 일부를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

〈대학 수 증감 추이 그래프〉



로, 또 그 일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했으며, 2013년부터는 경영부실 대학의 경우 국가 장학금 지원도 제한 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실제 폐교 조치를 받거나, 자진 폐교한 대학은 총 6개 대학으로, 감축 정원은 2,329명이었다.

### 박근혜정부의 구조개혁,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은 대학정 원을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부터 대 입정원과 고졸출업자 수의 역전현상 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에 비해 대입정원이 급격히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령인구 의 감소는 대학의 존폐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주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구조개혁기간을 3주 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

가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절대평가로 평가된다. 각 대학은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최우수 5개의 등급으 로 분류되고 등급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라는 조치를 받는다. 평가에 따른 결과로 퇴출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각 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특성화 사업과 같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을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인 정 원 감축도 유도하고 있다.

### 정원감축하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지정 유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부는 지난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통과가 예상보다 늦 어지면서 올해 역시, 이명박 정부 때 부터 실시한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2015년도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평가 지표에 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일교원 확 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 과정 운영, 장학금지급률, 등록금부담 완화, 법인지표로 총 8개이다.

현재 교육부는 모든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와 구조개혁을 연계해 대학 의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 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

교들 중에서 추가정원감축안을 내놓 으면 지정은 '유예'하는 것이다. 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이를 벗 어 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가산점만큼 정 원을 줄여야 했다.

### 앞으로 진행 될 구조개혁평가 지 표는?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구조개혁 의 평가지표는 어떤 것일까? 대학구조 개혁 추진계획 발표 당시 평가영역 및 내용을 '예시' 수준으로만 제시했었 다. 교육부는 이를 현재 계속 수정 중 에 있으며, 평가지표는 정량지표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지표 위주로 개발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연구진 은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 체와 협의를 거쳐 공청회 등을 통해 조만간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오는 30일 오 전 10시 대전 한밭대에서 대학구조개

혁 평가지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이 공청회는 원래 지난 22 일에 열릴 계획이었으나 교육부의 평 가지표와 평가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점에 대한 반발이 커, 공청회 자체가 연기된 것이다.

### 정말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까?

지난 10년 동안 교육부는 정원감축 을 목표로 강도높게 대학구조개혁정 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4년 이 후 약 10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 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해졌고 감소대 학보다는 대규모 대학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평가와 여전히 낮은 교육 여 체와 협의를 거쳐 공청회 등을 통해 조만간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오는 30일 오 전 10시 대전 한밭대에서 대학구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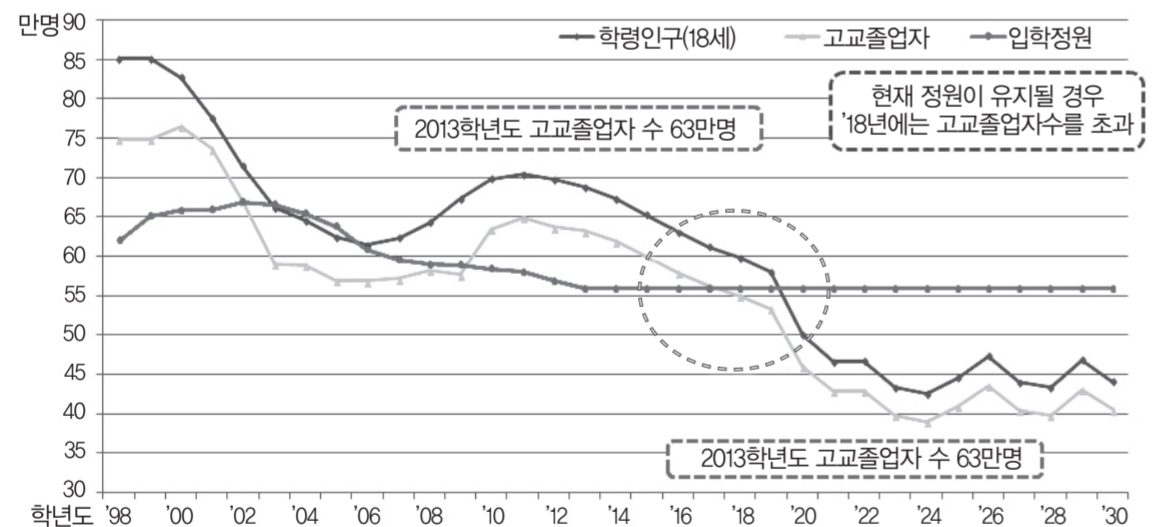
혁 평가지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이 공청회는 원래 지난 22 일에 열릴 계획이었으나 교육부의 평 가지표와 평가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점에 대한 반발이 커, 공청회 자체가 연기된 것이다.

정말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까? 일부 수도권대학이나 지방대학의 경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학교를 통폐합 해 학생 들은 일반적으로 학습권을 박탈당하 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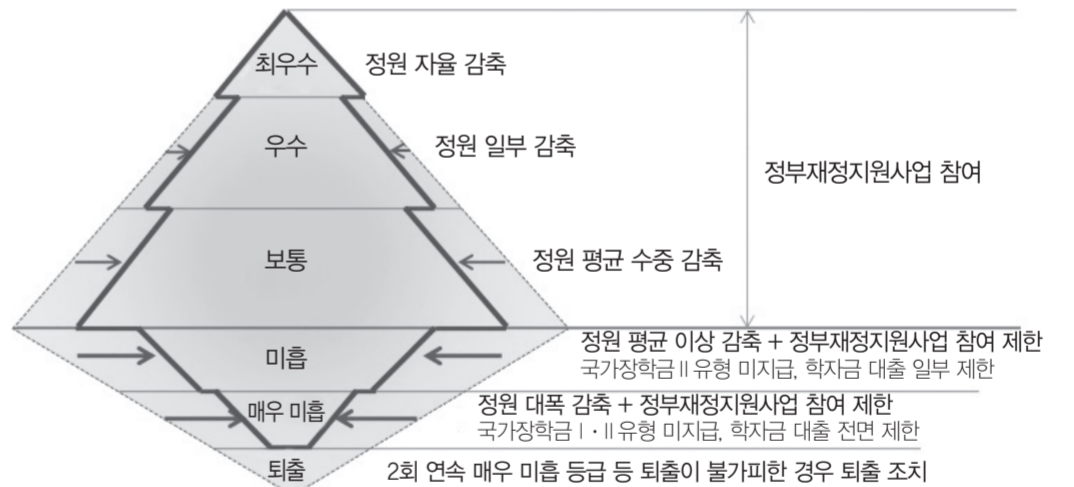
정부주도의 구조개혁이 진정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체 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 논리에 의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해 쳐서는 안된다. 또한 부실대학을 버려 버림으로 몰아내는 퇴출보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

(취재부)

〈학령인구 감소와 대입정원 대비 고졸자 수 역전 현상 그래프〉



〈대학 구조개혁 조치 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만 하면~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요! 모바일로도 아!”

| 학술정보관에서 추천하는 콘텐츠 |

### 하나. 전자잡지



- 시사/경제/문화/문학/교양/패션/취미/여행/스포츠 등의 약 202종 50만건의 기사를 보유한 국내 전자잡지
- 권호별, 기사별, 본문내용별 검색이 가능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전자정보원 → E-Journal

### 둘. CBT 토익/토플 모의고사



- 실제시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온라인 모의고사를 구현함으로써 실전 대비에 효과적임
- 토익모의고사(26회), 토플모의고사(13회이상) 제공
- Speaking, Writing 평가 및 첨삭지도 제공
- 모바일 이용 가능 (리스팅 튜터)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전자정보원 → E-Learning

### 셋.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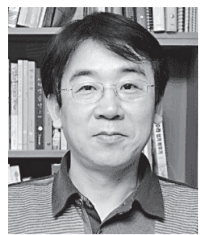


- 도서의 핵심내용을 A4용지 10~15장으로 요약한 콘텐츠로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 경제경영, 인문교양, 문학 분야의 도서요약본과 워트스쿨 경제경영 총서 시리즈 4,402종과 오디오 북 및 북세미나 동영상 제공
- 모바일 이용 가능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전자정보원 → E-Book



# 평창비엔날레를 마치며



교단에서

안광준 교수  
(시각영상디자인전공)

2012년이 마침 연구원이었는데 연구가 강원도이고 모 지역 미술협회에 관련한 관계로 연줄이 되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관계자 회의를 거쳐 비엔날레를 기획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반신반의하며 '땀 땅에 해답하는' 기본으로 방대한 기획작업을 시작하였고, 강원도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여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강원도의 문화예술은 영원히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일단 총대를 메기로 하였다. 그해 2월 알렌시아를 처음 방문하여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과연 찬미란만이 부는 이 산골짜기에서 큰 미술행사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였다. 비엔날레는 늘 유동인구와 관객동원이 보장된 대도시에서 열린다. 정말 큰 모험이었다. 비엔날레의 정체성은? 예산문제는? 후발 비엔날레로서의 생존을 위한 차별화는? 제로상태의 인프라는? 마케팅은? 가장 중요한 관객문제는? 등등 더구나 가장 큰 것이 경비문제인데 예비비 지원이 안 되는 상태로 협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했다.

직접 유럽으로 가서 미술관 투어를 하고 각종 기획안을 검토하던 중, 조래안은 만들었지만 8월 사무국 구성이 무산되고 연말에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에서 강원도외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던 것이 출타기간 끝에 결국 작년 4월 28일 추경에서 통과된 건 하였으나 관광객이 강원도로 몰리는 7월 20일로 개막일을 이미 잡아놓아, 실질적으로 불과 두 달 반 동안 큰 미술행사를 준비

해야 하는 어찌 보면 도박에 가까운 모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택 감독으로 나서는 사람도 없어 결국 기획한 입장에서 예술감독에 취임하여 고난의 행군을 감행하게 되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과감하게 소수 외국인 작가대신 국민공모를 통하여 다수의 신인작가를 발굴하였고, 비엔날레 예산으로 상당수의 조형물들을 매입하고, 올림픽을 대비하여 알렌시아에 영구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상당한 예산을 아꼈고 다음에 있을 특별전이나 재단설립기금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 언론의 많은 공격을 받았고 결국 국정감사장에 까지 비엔날레 감독이 끌려 나가는 초유의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시간이 없어 비엔날레 재단도 구성하지 못하고 임시사무국을 꾸려 올림픽이 개막되는 알렌시아리조트 주전시장과 망상엑스포 특별전에 많은 작가가 참여하고 17만의 관객이 방문하여 불가능할 것 같던 비엔날레

의 전 과정을 무사하게 마치기는 하였으나, 올해 지방선거와 연결되어 대단히 정치적인 게임의 와중에 있었고 특히 한국 언론의 실체에 대하여 뼈저리게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작년 여름 학사협의회도 알렌시아에서 열렸고 총감독으로서 대외적으로 우리 대학의 명예도 걸린 문제이므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언론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학교에 누를 끼친 점이 지금도 송구스럽기만 하다. 그렇지만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큰 사업을 진행하여 비엔날레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올해 재단이 만들어졌고 차질 없이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평창비엔날레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제 다시 학교의 노와 리리로 돌아와 수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힘든 사업진행에 성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우리 학교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간의 경험과 에너지를 학교발전과 수업에 쏟고 스스로 더욱 학교와 본분에 충실하고자 다짐한다.

## · 사 설 ·

# 이순신의 리더십

절제절명의 난관에서 빛을 바라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과 구성원들의 값비싼 희생이다. 영화 명량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순신이라는 지도자가 보여준 초월적 리더십과 이를 따르는 백성들의 감동적인 희생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공감 아닐까? 작금의 정치 현실에서 지도자는 없고 진영의 논리만 무성한 것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의 불편한 감정을 치유하는 한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카타르시스가 바로 이를 이르는 말이다.

위기가 닥치면 생물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한 이기심이 없다면 생물은 지금처럼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타적 행동이 전체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서는 이타적 행동이 빛을 발하기도 한다. 리더십은 조직 단위 행동에서 이기적 행동보다는 이타적 행동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한다면 산다." 이 한마디로 열세의 전투력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보면 위기의 순간 지도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물론 지도자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자질 혹은 인격이다. 평소 이순신과 공감하지 못한 군사들이었다면 '필사즉생'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겼을 것이다. 이순신은 전투에 앞서 꼭 엄한 규율로 군사 한 사람을 처형했다고 한다. 그러나 평시에는 그보다 인자한 장군이 없었다. 평소의 인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은 규율의 엄격함이나 지나침을 따지지 않고 결연한 자세로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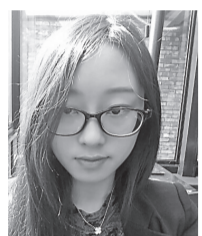
지도력이란 결국 지도자의 자질이 특정 시기의 뛰어난 결단인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국난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쌓이고 쌓인 폐단은 도려내지도 못한 채 의견만 무성하고 해결책은 찾아볼 길 없다. 원인을 잘 알아야 처방한다고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얽힌 원인은 산뜻하게 드러내 보기도 힘든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이 무효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도자는 달랠야 한다. 뛰어난 직관을 가지고 난마를 헤집 용기와 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지도자가 평소 신뢰와 덕망을 베풀지 못했다면 그가 어떤 행동과 결단을 한들 조직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지도자의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절대 왕권의 왕이 기우재를 지낼 때 하늘에 자신의 죄를 묻는 것은 확고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성찰의 과정이 아닌 오는 비를 내릴 재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으리라. 지도자의 눈물겨운 자기 성찰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사태를 수습할 수는 있다는 뜻이다.

훌륭한 리더십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나쁜 리더십을 대표하는 것은 지도자의 용렬함이다. 특히 논란의 위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선조와 이순신의 리더십을 대조할 때를 따라다니는 것이 선조의 용렬함이다. 이순신이 노략해 전에 전사하자 선조는 "장수가 전투에 전사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영웅의 죽음을 대하는 그의 용렬함을 잘 드러내는 발언이다.

이순신처럼 뛰어난 지도자를 가질 수 없더라도 적어도 용렬한 지도자는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우리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불세출의 영웅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지도자를 지켜주는 분들의 좀 덜 용렬한 모습을 보고 싶어 뿐이다.

# 이제는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할 때



기자수첩

최혜정 기자  
(의생활 1)

지난 15일 한성대 정문에 파란 부스가 설치되어 3일 동안 정문 앞을 지켰다. 'Hansung PressCenter' 이름하에 신문사, 영자신문사, 방송국 삼사가 연합하여 만든 프레스 부스였다. 삼사의 국원들, 기자들이 서로 어우러져 팝콘을 만들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엔 진행되었다.

하지만 부스설치의 목표는 팝콘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한성대 학생들에게 프레스의 존재를 알리고 관심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간판을 만들고 목성 높이 홍보를 했다. 부스설치의 목표 또한 중요하지만 특히 신문사에게는 신문의 백지화와 연기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학우들은 무관심했다. 일찍이 알아채고 멀리 돌아서 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내민 신문을 본 척도 안하고 지나가는 학생, 그리고 학교 곳곳에 신문을 버리고 간 학생까지. 하지만 나는, 부담스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신문사 홍보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본교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이를 가볍게 여겼다. 하지만 이 정책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그렇게 생각할 바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정책에 대해 알면 알수록 혼란스러웠고 '내가 직접 몸담고 있는 대학사회의 현실이 정말 필박한 사회' 같다는 생각이 미치자 그 압박이 나를 짓눌렀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절망만 할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본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갑갑해 한숨이 나왔지만 취재를 준비하면 할수록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 더 커졌다. 하지만 강감조인 한성대신문 492호의 첫 면은 백지로 발행되었다. 이어 발행된 493호의 발행

은 2차 감당회 이후 신문을 발행하려는 학교의 '권유'로 하루 늦춰지기까지 했다. 두 호를 발행하는 동안 민감한 사안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신문사는 편집권을 두고 학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무관심했다. 단지 내가 만든 신문을 읽지 않아서 아니라 그들이 몸담고 있는 한성대가 어떤 상황인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계속되는 무관심에 우리가 이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한성대 학우들을 믿는다. 그들이 발 벗고 나설 때, 우리 학교는 더 성장할 것을 알기에 하루라도 빨리 무관심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 스마트폰의 역설



낙산에 올라

최세민 학생  
(경영학부 1)

'심심하면 톡톡, 지루하면 터치, 하루 온종일 스마트폰,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잠 잘 때도 스마트폰 없으면 안 돼." 꼬맹이 사촌 동생을 따라 어린이 도서관에 놀러갔을 때 우연히 발견한 책에 있던 말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었지만 성인인 나에게도 적잖게 인상을 주었고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등교하는 학생이다. 항상 지하철에 앉아 주변을 한 번 훑 둘러보면 칸 내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 속을 바라보고 있다. 화면을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하냐.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다. 나는 종점역에서 내리므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리는 걸 본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리기 전까지 계속 스마트폰과 관련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스마트폰이란 상당히 대중적이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슈퍼스타라 할 수 있겠다.

강남스타일의 싸이조차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는 스마트폰이란 무엇일까?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똑똑한 전화기'라는 뜻이다. 여기서 '똑똑한'이란 구체적으로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등 컴퓨터 기능이 추가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카더라 컴퓨터로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게임을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했었는데 항상 듣고 다는 조그만 휴대 전화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여간 편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일장일단(一長一短)이라고 했던가. 이러한 편리성과 간편한 휴대성에 스마트폰으로 이끌렸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잃어버린 대화에 대한 목념",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목념", "잃어버린 열정에 대한 목념", "잃어버린 관심에 대한 목념"이라는 어느 공익광고의 글귀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폐해를 잘 보

여준다. 또한 미래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20%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한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중 약 62%가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이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이끌려 세이렌에게 잡아먹히는 선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선원들에게 죽음이란 결과를 가져다 준다. 스마트폰은 중독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신체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거북목 증후군이란 거북이가 목을 빼고 있는 것처럼 구부정한 자세를 말한다. 이 자세는 목 뼈를 구부리지는 방향으로 배열되게 하고 이는 머리에 비해 목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목 근육의 수축을 어렵게 한다. 목 근육과 갈비뼈는 연결되어 있는데 목 근육의 수축이 어려우면 갈비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 30%까지 호흡량이 감소되어 호흡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뇌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팝콘 브레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팝콘 브

레인' 현상이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뇌에서 생각 중추를 담당하는 회백질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톡톡 튀어 오르는 현실 상황에만 반응할 뿐 천천히 변하는, 타인의 감정이나 현실 상황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게 된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 집단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소리나 불빛에 반응하여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게 하는 등의 실험을 진행했다고 한다. 실험 결과,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반응 속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하고 이는 '팝콘 브레인' 현상이 사실임을 증명해준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도구란 인간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그것을 사실상 지배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도 눈에 보이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도구이다. 그런데 이를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를 지배한다'라기 보다 오히려 스마트폰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도구가 인간을 지배한다. 이렇게 위험한 역설이 또 있을까?

# 무관심이라는 '독'

지난 9월은 작년과 달랐다. 지면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내가 시끄러웠다. 작게는 수강신청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총학생회의 성명서까지. 하지만 그 어느 때처럼 조용하기도 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제3자로서 모든 사안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작게는 핵심B의 고질적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8.6%의 정원감축까지.

지난겨울, A학점 성적 세척 변경 때와 달리 이번 사안에 있어서 학생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낙산의 메아리에 총학생회가 게시한 성명서의 조화 수 역시, 성적 세척 변경 때 올라온 게시글과 비교해보았을 때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이에 동조하는 게시글 역시 단 한건만 올라온 것이 전부였다. 물론

그 당시와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는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성명서는 당시의 A학점 성적 세척 변경의 원인을 설명하고 책임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성원들의 무관심은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 비단 구성원들의 잘못된 뿐일까, 어쩌면 관심을 고취하는 자극이나 매체 자체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자극과 매체를 제공하는 주체가 학생대표가 되었든 학내 언론기관이 되었든 간에 말이다. 우리학교에는 무관심이라는 '독'이 은연중에 퍼져나가고 있다. 지금은 그 독을 빨아내야 할 때이다. 무관심이라는 독에 취해 지난겨울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 학생회의 존재 이유는 학우님들입니다



한성인께

김백현 예술대 학생회장  
(의류패션산업학과 4)

'조금은 성급하게, 그러나 그만큼 빠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대학 학생회장 출마 결정과 함께 마음 먹었던 생각입니다. 본 글을 읽고 계신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위 말에 대한 목적이 생략되어 있지만 무언가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학생회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에 대한 무목적성과 그에 따른 비단산 신뢰도. 우리 학생회는 이처럼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듣기에 매우 협소한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회 존재 이유에 대한 목적이성 수립 및 신뢰도 확보'가 제임기 동안 구축하여야 할 제 1의 목표로서

지금부터는 그에 대한 활동을 이야기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학생회는 왜 존재합니까?'

학생회라는 단어가 좋은 느낌스런 것이 아닌 것 어찌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일부 학생들과의 소통 시에 '그거 하는 일 없잖아?' 라는 말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학생회 존재 이유에 대한 목적이성 수립 및 신뢰도 확보'가 쌓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 17대 예술대학 학생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2014년 학생회 임원진이 꾸려지고 기존에 역할이 있으나 마나하였던 국장 자리를 없애고 홍보 / 디자인 / 후원 / 행사 / 예산 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홍보 채널 강화 및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복지행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준비를 마치고 2014년 예술대학 생활지침캠프(구 새내기 배움터)를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 예술대학 생활지침캠프는 모든 준비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인 부산외대 사건에 의해 예술대 신입생 학

우님들과 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시작점에서 예술대 학우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통을 하였고, 학우님들은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 하셨으며 이에 따라 타대학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와 현실적으로 본 학생회가 최선의 비용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답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BTL 마케팅으로 활동해 온 경험을 살리어 '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25일 / 6월 29일 2회에 걸친 파티는 타투 리스트와 온라인 쇼핑물의 후원, 그리고 예술대 학우님들의 너무나 많은 성원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칼라 프린터, 야식배부, 한성대 예술대학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및 컨텐츠 개발, 창의관 Wifi 개선 등 이것은 학생회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대학이라는 큰 조직에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

요하지만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기에 학생회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예술대 학우님들을 대상으로 한 '핵심교양 A/B 개선 방향을 위한 설문지'가 발부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적힌 학우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 임기가 끝나기 전, 핵심교양 A/B 수강신청 불편 문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시행하게 하여 2015년도에는 부디 핵심교양 A/B 관련하여 학우님들의 불만이 사그라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열심히 학교측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회는 학우님들이 없다면 존재하지 못하며 행동력 또한 없습니다. 그것이 학생회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입니다.

학우님들, 신뢰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여전히 선출되었던 그때의 마음가짐을 기준으로 학우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회, 그런 학생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낙산만평 한지선(의생활 1)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다른학교 축제가자!

핵심교양 A/B 개선 방향을 위한 설문지

핵심교양 A/B 수강신청 불편 문제

핵심교양 A/B 개선 방안

# 꿈의 대화

비주얼-아트디렉터 김세명 감독을 만나다.

“꿈의 대화”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멘티(본고 학생)가 만나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편집자주>

## “Music+Video, 보이는 예술로의 승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예술을 보이는 예술로 승화하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창작예술. 뮤직비디오란 단어는 친근하지만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비주얼-아트디렉터란 단어는 다소 생소할지도 모른다.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과 함께 중요해진 것은 바로 영상이다. 한성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비주얼-아트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명 감독을 만났다.

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학과 공부를 하며 포토 어시스턴트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할 즈음에는 CF 조감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점차 필름-비주얼아트디렉터를 향해 걸어가게 된 것 같아요.

**멘티: 감독님께서 존경하시는 아트 디렉터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왜 그 디렉터를 존경하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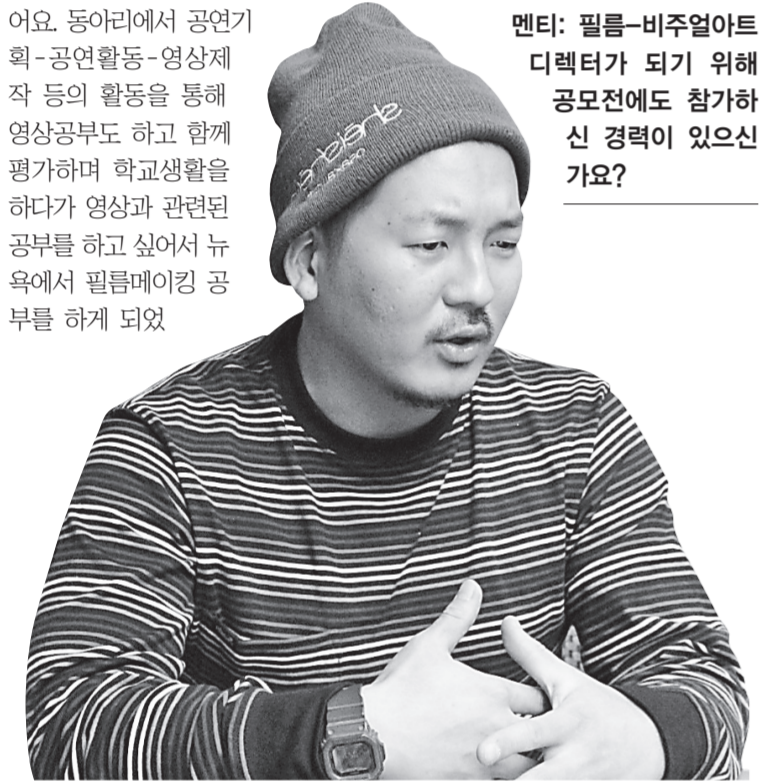
**멘토:** 스페이크 존즈를 가장 존경해요. 그의 작품은 중학교 때부터 접해왔고 뉴욕에서 필름메이킹을 공부하며 스페이크 존즈라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욱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는 현재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전에는 뮤직비디오, 스케이트보드 클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어요.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았어요.

**멘티: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 '비주얼-아트디렉터'로 어떻게 진출하게 되셨나요?**

**멘토:** 중학교 때부터 영화와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전공을 배우고 싶었지만 대학 입시에 맞추어 한성대학교에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죠. 대신 음악을 즐기고 공연할 수 있는 TRIAX 흑인음악 동아리를 친구들과 창립했

어요. 동아리에서 공연기획-공연활동-영상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영상공부도 하고 함께 평가하며 학교생활을 하다가 영상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뉴욕에서 필름메이킹 공부를 하게 되었

**멘티: 필름-비주얼아트 디렉터가 되기 위해 공모전에도 참가하신 경력이 있으신가요?**



▲ 비주얼-아트디렉터 김세명 감독의 사진이다.

**멘토:** 공모전에 참가한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주어진 주제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작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전달될까 의문이 들었고 틀에 박힌 느낌이 싫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한 진정한 의미의 창작활동은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바를 창작하는 것이어서 공모전과는 의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공모전에 참가하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공모전에 참가해 준비-완성까지의 과정에서 자기 계발을 하게 되고 결과물이 본인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멘티: 필름-비주얼아트디렉터를 꿈꾸는 학우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멘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될 만큼 심도 있게 다가가야 해요.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직접 구해야 했던 예전보다 조건은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혼자서 공부하기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색깔이 있어야 해요. 자신의 색깔이 있어야 작품에도 그 의도가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멘티: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비주얼아트디렉팅이라는 분야에서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멘토:** 개개인의 성과와 역량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 영상을 제작하는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고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는 고객이

감독의 작품을 보고 작업 제안이 들어와 함께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세계를 확고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객의 눈에 들기 위해 본인의 작품관을 지우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시키려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색깔이 살아지면 크리에이터로서의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메바컬처에 들어가게 된 계기도 소속사에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한국 단편경연 본선에 진출한 '코인 사이드(Coinside)'라는 작품을 보고 디렉터 제의가 들어와서 예요. 이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메바컬처내 뮤지션들의 음악적 색깔, 성장과 저의 색깔이 어울리는지였어요.

**멘티: 비주얼아트디렉터로서 직업의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멘토:** 디렉터로서 최고의 결정권자라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위인데 이 결정에 따라 작품의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결정에 있어 많은 부담을 느껴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1박2일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작품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이 고충이에요. 물론 촬영마다 주어진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영상제작을 끝마쳐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촉박함을 느껴며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멘티: 작품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멘토:** 영감은 보통 노래를 듣고 얻는데 이 영감의 소재는 그냥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것들로부터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노트에 적어

요. 뮤직비디오 영상제작의 경우 영상을 통해 음악이 더 잘 들리게끔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뮤지션의 색깔과 음악의 색깔을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후반작업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촬영 시 효과를 주는 게 후반작업에서 효과를 주는 것보다 자연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촬영할 때 조명과 앵글에 시간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멘티: 그렇다면 감독님은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멘토:** 영감은 보통 노래를 듣고 얻는데 이 영감의 소재는 그냥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것들로부터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노트에 적어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때 노래를 듣고 얻은 영감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개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미지가 파생되어 나온다고 생각해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

는다고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노래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들어요.

**멘티: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때 감독님께서 컨셉 기획부터 뮤직비디오 총괄까지 하시나요?**

**멘토:** 일단 콘셉트 기획부터 뮤직비디오 총괄까지 하는 것이 비주얼아트디렉터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통일감이 있어야 완성도가 있는데 이렇게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하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의 마지막 단계까지 총괄해야 통일감 있는 완성도 높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멘티: 그간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뿌듯한 순간이나 아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멘토:** 백이면 백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촉박해서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작품 제작 시에는 생 각지 못한 새로운 발상이 떠오르기도

해서 아쉬워요.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어 다음 작품에 더 열심히 몰두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뿌듯한 순간은 역사적 프로듀서인 DJ 프리미어와 한국의 역사적 힙합그룹인 다이나믹 듀오가 콜라보레이션한 'AEO'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나중에 DJ 프리미어가 뮤직비디오 잘 봤다는 말을 제게 했어요. 그때가 기분이 좋았고 가장 큰 보람감을 느꼈어요.

이번 꿈의 대화 인터뷰는 예술가의 핫 플레이스 홍대에 위치한 자유로운 분위기의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들으며 햇살이 따사로운 테라스 쇼파에 앉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다. 이번 멘토와 멘티는 자신의 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그래서 더욱 공감하며 활발한 이야기가 오갔다.

한지선기자 mongrock@hansung.ac.kr



▲ 지철희(정통 2), 나지환(정통 2), 이민선(패니 4), 이조안(패니 4) 멘티들의 사진이다.

### 대학원의 품격

## 교육의 꽃, 상담심리 전공을 교육하는 교육대학원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심리 전공



▲ 신재홍교수가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을 강의하고 있는 사진이다.

학교 폭력, 교내 왕따, 자살 등으로 인한 정서 불안으로 관심과 치료가 절실한 초, 중, 고교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는 전문 상담교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교육자에게 교육학과 교과교육학의 각 전공분야의 학문을 교수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 상담심리전공은 생활지도와 심리치료를 포함해 적응적,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여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신재홍 교수(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주임교수)는 "상담심리를 포함한 교육심리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마다 적성, 흥미, 지능 등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상담심리 전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담심리 전공의 교육과정은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이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이며 이를 1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상담실습과 사례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그 중 상담실습이 상담심리 전공 교육과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상담실습

은 시정이나 균형 등 전문기관에 속해 있는 상담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다. 일주일에 2시간씩 20시간을 이수하면 되고 실습 후에는 사례연구 보고서 2편을 제출해야 한다. 상담심리 전공의 수강생들은 전부 현직교사들이다.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이 현직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재홍 교수는 "학교폭력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케어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현직교사들이 온다"며 현직교사들이 입학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올해 11월부터 교직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입학이 가능

하다. 이들은 상담심리 전공을 모두 이수하여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자원봉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현직교사들의 경우, 1급 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학교의 진로상담부장 등에 해당하는 보직교사로 우선 임명이 가능하다. 상담심리 전공의 최종 도달점은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상담심리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들이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많이 육성되기를 바란다. 오혜진 기자 dhgpwls0424@hansung.ac.kr

### THE HANSUNGS

글: 그림 최혜정(의생활 1)



습관이란 게 참.....

# 또 다른 나의 분신,

## 도플갱어와 마주하다

소심한 성격으로 직장에서도, 가족에게서도 소외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다. 흔히 존재감 제로라고 불리는 이 남자에게 어느 날 자신과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찾아온다. 이 도플갱어는 그와 정반대인 외향적인 성격과 매력으로, 주인공의 회사에서 인기남으로 등극하게 된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마주친 걸로 모자라 심지어 주변에서는 이를 알아채지도 못한다. 이런 억울하고 무서운 상황이 또 어디 있을까. 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원작소설 『분신』을 바탕으로 최근 개봉한 영화 《더블》의 내용이다.

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자신의 분신과 만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도플갱어'라고 한다. 도플갱어는 오래전부터 여러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소재이면서, 실제로 도플갱

어를 체험한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말로 도플갱어가 존재하는 것일까?

### 도플갱어, 두명의 나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21살 청년일 적 자신의 도플갱어와 여러 번 마주했다고 한다. 괴테는 『시와 진실』에서 '죽,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같은 길을 말을 타고, 더구나 내가 한 번도 입었던 적 없는 열은 금빛을 띤 회청색 옷을 입고, 내 쪽으로 다가오는 나를 보았다'라고 기록했다.

괴테가 경험한 현상이 이른바 도플갱어이다. 이 단어는 독일의 한 지방 민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다. 우리말로로는 분신 혹은 생령으로 불린다. 도플갱어에 대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나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플갱어는 주로 괴담이나 심령현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괴테는 도플갱어 현상을 겪어도 83세까지 살았다. 꼭 도플갱어가 죽음의 전조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괴테는 사랑하던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괴로운 나날을 지내던 중 도플갱어를 만나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 그렇다면 도플갱어의 실체는 무엇일까?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다'라는 괴담처럼 죽음과 연관된 도플갱어 현상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영혼복수설(靈魂復讐說)'이 있다. 자신의 육체에서 빠져나간 '영혼' 그 자체가 도플갱어이기 때문에 영혼을 잃은 육체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다.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바(Ba)와 카(Ka)로 나누어져 있고, 사람이 죽을 때 카가 육체에서 빠져나와 이승에 머문다고 믿었다. 육체가 잠들어 있을 때 카가 혼자서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깨어있을 때 본인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도플갱어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영혼에 대한 믿음은 여러 나라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가설들은 다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심령술, 독심술, 텔레파시와 같이 알 수 없는 초자연현상 혹은 미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 정신질환으로 설명하다.

도플갱어를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과학적 근거를 중시하는 오늘날 현대 정신 의학에서는 도플갱어를 '자기상관시(autoscopy)'로 설명한다. 자기상관시는 자아가 자기 몸밖에 있는 또 다른 자아를 보지만 자아가 자신의 몸과 분리되었는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한다. 피로상태, 편두통, 두부외상 후유증, 약물중독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편두통을 도플갱어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편두통은 두통이 시작되기 전 눈앞이 반짝거리거나 별모양이 나타나는 전조현상을 일으킨다. 이 시각적 전조 현상 중에는 망자의 모습이나 자기 모습을 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또 한 가지로 흥미로운 가설은 스위스 취리히대학의 신경심리학 전문가인 피터 브루거 박사가 제시한 '환상지동'이다. '환상지동'은 예를 들어 사람이 한쪽 팔을 잃어도 그 팔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비록 한쪽 팔이 없어지긴 했어도 팔에 관련된 신경이 뇌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브루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뇌의 두정부에 자신의 전신 이미지가 기억되고 있고, 이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도플갱어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플갱어가 일어나는 원인의 하나로 뇌중양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뇌의 문제가 자기 자신을 보는 환영을 만들어 낸다는 가설이다. 이 때문에 도플갱어 현상을 겪는 사람들의 수명이 짧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분신』에서 도플갱어를 이중적인 자아를 표현하는 모티프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도플갱어 현상을 겪는 것은 자아의 분열로 설명할 수 있을까. 도플갱어의 실체에 대한 가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플갱어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어쩌면 정말로 도플갱어가 실존하는 것은 아닐까?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참고논문

황승환, 『자아의 분열인가, 통일성에 대한 욕망인가? -페러다임 변환기의 문화 현상으로서 도플갱어 연구(1)-, 한국독일언어문화학회, 2014년



▲도스토예프스키의 원작소설 『분신』을 바탕으로 최근 개봉한 영화 《더블》의 포스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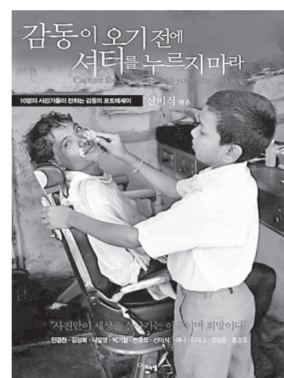
### OPENBOOK 테스트

“오픈 북 테스트는 마치 시험을 볼 때 전공 서적을 몰두하여 읽어 내리는 것처럼 인생이란 시험속에서 도움이 되는 책을 교수님께 소개받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포토에세이는 사진을 천천히 감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작가의 글을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포토에세이 한 권으로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박한철 교수(애니메이션과)

### 감동이 오기전에 셔터를 누르지 마라



▶ 신미식 외 10명 | 이클라세 | 2006.03.03

### 파워 멘토링



▶ 엘렌 앤서, 수잔 머피 | 아카데미북 | 2010.01.25

10명의 사진작가들이 전하는 감동의 포토 에세이집. 여행사진작가 신미식과 그의 블로그를 통해 만남을 이어오던 아마추어 사진가 9명이 자신들의 작품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사진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10명의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의 사진집이다. 이 사진집에는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녹아 있다. 프로 사진 작가의 작품도 감동적이겠지만, 다소 투박하고 덜 세련되었을지라도 보통 사람들의 기쁨과 감동, 꿈과 애뜻함이 담긴 보통 사람들만의 살아있는 시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공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멘토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거물급 리더 50인의 멘토링!  
이 책은 성공적인 멘토링 방법을 알려주는 멘토링 종합서이다. 기존의 멘토링이 멘토가 멘티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단순한 관계를 의미했다면, 파워 멘토링은 둘 다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이 책은 밥 라이트, 리 버틀러, 앤 스 위니, 로사리오 마린 등 미국 내에서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50명의 멘토와 그들의 멘티들의 실제 사례 및 솔직한 견해를 담고 있다.

### 인문하는 너

“인문하는 너는 성적, 취업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삶에 통찰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으로 답을 제시해주는 인문학 칼럼 코너입니다.”

### 현상 속 본질을 찾아서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본질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본질을 잘 찾아내면 일을 잘 풀이할 수 있고 공부의 원리를 알 수 있으며 여행을 해도 남과 다른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그 본질을 찾아내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자면 현상과 본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하지만 근본은 같다. 현상은 어떤 사물이나 진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말한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현상에 불과하다.  
본질은 사물이나 사건 혹은 현상의 변하지 않는 본래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느낌을 알기 어렵다. 가끔 본질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직관력 혹은 통찰력이 생겼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관계를 풀이할 때 직관이나 통찰이 뛰어나다면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 본질이 현상의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본질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바로 현상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현상을 모아보면 그 속의 본질을 알 수 있다. 현상들의 공통점, 숨겨진 특성들 속에 본질이 담겨 있다. 흔히들 자료 혹은 정보라고 부르는 것은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정보와 자료들이 많을수록 본질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많은 정보가 오히려 눈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정보의 질을 따져야 한다. 좋은 정보들을 분류하는 것은 본질을 찾

아내는 유용한 방법이다. 유형별, 형태별로 잘 분류하다보면 본질에 접근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은 것 중에서 유용한 정보나 지식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 높은 정보와 지식을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다. 무엇이 좋은 정보인지는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때 분명한 목적의식이 도움을 준다. 왜 읽는지를 모르면, 읽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알지 못하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보의 질을 추구할 수 없다. 얻은 것들을 분류할 수도 없다. 목적의식은 갈래를 잡는 기준을 제공한다.  
흔히들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말하는 원리가 본질에 접근하는 길을 안내해준다. 원리를 알려면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공부라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내용을 머리에 담아두는 것은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따져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질문이다. 특히 '왜?'라는 질문은 원리를 탐구위한 핵심적인 질문이다.  
세상살이에 유용한 공부를 하려면 본질과 원리를 탐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 그 속에서 변화의 맥을 찾아내고, 문제를 풀이하는 힘을 얻으려면 스스로 본질과 원리를 탐구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 안상현

자기개발과 책임기의 전문가

저서 『청춘의 인문학』 『인문학 공부법』

### 뚝!뚝! 연구중이세요?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 '대학연구소'는 끊임 없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과 모험적인 설계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고,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이나 실생활에 이용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는 곳이다. 우리학교의 연구소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탐방해보자. (편집자주)

### ③ SoulFN 서울패션네트워크 사업단



▲ SoulFN의 사무실에서 김복희 교수와 이소영·강해란전임연구원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이다

### 신진디자이너와 제조업체를 후원합니다!

패션을 즐기고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SoulFN'에 주목하자. 온라인 편집숍 SoulFN에서는 주목할 만한 신진 디자이너 10명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자신만의 색다른 스타일을 가진 신진 디자이너들이 탄탄한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SoulFN은 단순한 온라인 편집숍이 아닌 열정과 역량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창업 및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신진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사업단이다.

SoulFN은 본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역연구육성사업(RIS)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패션 창조지구 육성을 위한 디자이너 & 제조네트워크 브랜드이다. 2011년 설립된 SoulFN 서울네트워크 사업단은 이창원(산학협력단) 단장과 부단장인 김복희(패션디자인전공) 교수, 홍윤경 팀장과 이소영·강해란 전임연구원이 이끌고 있다.  
SoulFN은 서울시의 창의적이고 역량이 있는 신진 디자이너를 수혜디자이너로 선발하

여, 제품개발·생산·유통·마케팅 등 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해주고 있다. 유통과 마케팅, 온라인 쇼룸, 디자인 & 제조 네트워크 사업, 친환경 단체복 사업을 진행하여 디자이너와 제조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김복희 교수는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3년간의 1단계 사업이 끝났다. 올해는 2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구축된 패션 네트워크를 통해 신진 디자이너들의 사업성과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올해 선발 공고와 심사를 통해 엄선한 SoulFN의 수혜 디자이너는 총 10명이다. 이들은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한성대 학생들도 명정심사를 통해 수혜 디자이너로 선발될 수 있다. 김복희 교수는 "이 사업을 통해 한성대학교를 홍보할 수 있고, 공적인 지원이 아니라도 이러한 패션 산업 사업의 노하우를 학생들이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oulFN은 디자이너의 육성뿐만 아니라 패션 계열 제조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여 청년 고용을 늘리고, 공정한 노동, 친환경 의식을 위한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종대학교 유통프랜차이즈연구소, 서울패션봉제협동조합, ㈜오르그닷, ㈜윌코상사가 참여기관으로 함께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인 '오르그닷'은 윤리적 패션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디자이너들과 함께 친환경 원단을 사용한 친환경 단체복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김복희 교수는 "디자이너와 제조기업이 같이 성장하고 착한 소비를 돕는 사업으로 패션산업의 가치 함양을 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교에서 SoulFN 사업을 주최하여 신진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브랜드가 자리 잡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착한소비, 고용창출까지 늘리고 있구나 놀라울 따름이다. 무엇보다 본교 학생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알고, 디자이너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갈 바이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1인 미디어, 감독으로서 기획자로서 연출자로서 1인 3역

‘비빔면 먹어본 사람은 공감’, ‘국가별 모기 물렸을 때 반응’, ‘능지차참 소세지’ 등 독특한 소재의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이 영상들의 주인공 삼인방이 있었다. 일명 누텔라 보이스로 유명한 유준호씨는 ‘지퍼는 열린 문’을 시작으로 총 170여 개 이상의 터빙 동영상들을 만들었다. 이 중 조회수가 70만건 이상 기록한 영상도 있다.

‘고갱의 비디오’의 고태원씨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는 소재를 영상으로 재미있게 풀어낸다. 최근 올린 영상인 ‘아이언의 독기’는 조회수 15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독특한 제목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선바의 예술세계’의 김선우씨는 7만명 이상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 ‘후회할 말 해놓고 후회 안하는 방법’과 같은 색다른 소재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녹여낸다.

신선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자를 끌어 모으는 ‘1인 미디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1인 미디어’는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여 자신만의 트렌드를 추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일컫는 말로 블로그나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매체에 속한다. 자신의 트렌드를 고집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재치있는 입담을 뽐내며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줄 유준호씨, 고태원씨, 김선우씨를 만났다.

**누텔라 보이스 “1인 미디어란 호흡이다. 다른 사람들과 숨칠 수 있는 공간”**

**Q: 유준호 페이지와 같은 1인 미디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노래를 부르려고 마이크를 샀었는데 노래를 불러보니까 되게 못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잊고 있었는데 그 당시 겨울왕국이 유행이었어요. 어떤 분이 연서복(연애에 서툰 복학생)으로 겨울왕국을 패



▲ 진지하게 인터뷰에 임하는 유준호씨.



▲ 왼쪽부터 김선우씨(선바의 예술세계), 고태원씨(고갱의 비디오), 유준호씨(누텔라 보이스)이다.

리더해서 올린 영상을 보고 저도 재미있게 패러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린 것이 시작이었어요.

**Q: 흡소핑 광고나 아이, 동물 영상 등에 터빙을 입혀서 영상을 제작하시는데 그러한 터빙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A:** 원래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는 말투예요. 예전에 광고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남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해요. 터빙 대부분은 따로 만들지 않고 모든 영상을 즉흥적으로 해요. 흡소핑 상 태에서 영상을 보고 1차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배제해 두고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요.

**Q: 1인 미디어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요즘에는 사람들이 TV를 자주 안보는 것 같아요. SNS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1인 미디어가 웬만한 광고보다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Q: 1인 미디어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유튜브가 수익이 제일 많았었는데 요즘은 광고 녹음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대기업 부장 정도?

**고갱의 비디오 “1인 미디어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고 싶은 것”**

**Q: 고갱의 비디오와 같은 1인 미디어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2009년 말부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해외 사람들이 동영상을 올린 것을 보면서 감명을 받고 그때부터 캠코더를 사서 이것저것 찍으면서 처음 시작했어

요. 그때는 구체적인 주제 없이 친구들과리 노는 영상을 찍어서 큰 조회수를 얻는 것에는 의미가 없었고 비디오 블로그나 제 유튜브 채널에서만 운영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것에서 재미를 느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게 되었어요.

**Q: 요즘 많은 사람들이 1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과 다른 각자의 차별화된 특성이 있나요?**

**A:** 저는 편집을 되게 잘해요(웃음). 영상이 15초가 넘어도 하나의 주제에 대한 것이어서 깔끔해요. 1인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작가로서 피디로서 연기자로서 모든 것을 다 아울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거든요. 예전에 피디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공부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로서 남들보



▲ ‘뚜루루루루~’ 티셔츠를 자랑하는 고태원씨.

다 더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Q: 1인 미디어를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간혹 올라온 악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호 학생들의 친구들이 제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고갱의 비디오를 보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고요. 또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여성분들에게 고갱의 영상 덕분에 힘이 난다고 메시지가 온 적이 있어요. 악플에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이런 메시지 덕분에 제가 오히려 치유되죠.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우스꽝스런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힘이 된다는 보람을 느끼죠.

**Q: 1인 미디어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돈 많이 벌어요. 커피값 정도(웃음)지금 다른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수익은 아마 교통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 이상을 벌기 위해 여 플 기획자라는 다른 직업도 하고 있어요.

**선바의 예술세계 “1인 미디어란 견드량이 덜이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따뜻하니까”**

**Q: 선바의 예술세계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선바는 어렸을 때부터 불리던 제 별명이에요. 별명으로 불리면 뭔가 까불고 싶고 장난치고 싶어지는데 김선우라는 이름은 흔하고 딱딱하게 느껴져서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에게도 친구처럼 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어요. 뒤에 예술세계는 나의 장대한 예술세계에 초대한다는 의미예요.

**Q: 요즘 많은 사람들이 1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과 다른 각자의 차별화된 특성이 있나요?**

**A:**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아요. 남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안에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녹여서 사용해요.

**Q: 일상 속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제작하시는데 그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나요?**

**A:** 사람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소재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 보통은 놀다가 이거 괜찮지 않나 하면서 그걸 캐치해두고 영상으로 살려요. 따로 메모를 해요. 아이디어가 700개 정도 있어요. 겨울변기, 엄마랑 밥 먹을 때, 난 내일 아침에 후회하게 될거야, 부왕 아이 언젠 등등

**Q: 1인 미디어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겸감 정도 버는 것 같아요(웃음)

단순히 재미 또는 취미나 호기심 등으로 인해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삼인방이 점점 사람들의 조회건수가 높아지면서 팬이 생겼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나 소속사와의 계약이나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기도 했다. 어느새 1인 미디어로서의 입지를 다진 것이다.

서로 연관이 없던 이 삼인방은 각자의 페이스북에 영상을 게재하면서부터 서로 인연이 닿아 지금은 꾸준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셋이서 같이 영상을 촬영하는 등 동료로서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다. 진담 반, 농담 반 커피값 정도밖에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이들. 그러나 SNS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과 소통의 장을 연 이들은 이미 커피값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오혜진 기자 dhgpwls0424@hansung.ac.kr



▲ 심각한 브이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선우씨.

## 연들♥연들

‘연들연들, 연애고민 들어주세요’는 한성대 학우들이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하려는 단계에서 겪는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혼자 지내고 있는 모태솔로입니다. 외모나 성격이 특별히 모난 것도 아니고 대인관계도 활발한 편입니다. 대부분 모태솔로들이 여중, 여고 출신인 것과는 다르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남부공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남자들한테 오히려 제가 더 남자처럼 친하게 대하고, 오빠들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오글거려서 형이라고 부르며 지낸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런 저를 보고 그러다가 평생 연애 못 한다고 놀리지만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성격을 바꿀 수도 없고 정말 걱정입니다.

## “성격 때문이 아니라 매력 때문이다”

### 전문가의 조언

성격이 남자 같아서 남자에게 인기가 없다고 오해하는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가 편해서 형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연애를 못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로서의 매력이란 여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끌리는 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여자의 어떤 매력이 끌릴까요?

첫 번째, 의외성에 끌립니다. 성격이 비록 남자 같아도, 웃겨서 여성스럽다면 오히려 더 끌립니다. 혹시 당신의 스타일이 너무 수수한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사실 말이 사람의 감정을 형성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쉽게 오빠라는 호칭을 쓰게 되면 남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여자가 나를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렇게 되면 남자의 적극성도 사라지고 맙니다. 흐지부지하다가 오빠 동생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남자와 친해지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남자와 적이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특히 남자들은 모든 남자와 친하게 지내는 여자를 가볍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격을 고칠 수 없다면 자기 계발을 통해 매력을 연출해보세요. 외모와 몸매 관리를 하고, 예쁜 단어를 쓰고, 걷는 연습도 하고, 표정 관리도 하고, 생각이 깊을 수 있도록 독서를 하고, 향수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도 연출하고, 그럼 자신의 성격과 상관없이 남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노력이 귀찮아 모태 솔로인 이유가 단지 성격 때문이라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 송창민

『연애의 신』, 『연애 바이블』의 저자이자 연애 컨설턴트 다음카페\_ ‘송창민의 이기적인 연애’ 운영 중 네이버 블로그\_ blognaver.com/lovestudy78

## 다원

다원이란 ‘모두가 원하는’이라는 순 우리말로 한성대 학우 모두가 좋아할만한 연극표를 드리는 독자 참여형 이벤트 코너입니다.

신문내용을 토대로 주관식 단답식 문제를 출제했으며 정답자에 한해 추첨으로 연극 ‘룸넘버13’티켓 (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발송하여 주세요.

사람이 이번 ‘꿈의 대학’의 멘토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①김태희 ②김한성 ③박신문 ④김세명

학술) 독일 민담에서 유래하여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문화) ‘1인 미디어, 감독으로서 기획자로서 연출자로서 1인 3역’ 기사에 등장한 인물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고태원 ②유준호 ③김선우 ④유준호

지난 493호의 당첨자는 고기동(행정 3), 김다인(자정 2), 김소연(무역 3), 김수영(한국어문 2), 서하늘(역사문화 1) 학생입니다.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OOPS NEWS**  
웃음작별연극, 코미디의 핵폭탄! 이미 전세계 40여개국에서 대 히트중인 레이쿠니의 신작

**충격!**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총재비서 스캔들

**룸넘버 13**